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1
----------	------

발의연월일 : 2024. 7. 31.

발 의 자 : 인요한 · 박준태 · 장동혁
구자근 · 성일종 · 강승규
권영세 · 권영진 · 김예지
최수진 · 김도읍 · 박지원
임이자 · 김석기 · 이병진
조승환 · 이종욱 · 박수영
서지영 · 김용태 · 김재원
김정재 · 김기현 · 송석준
김 건 · 김대식 · 유용원
김소희 · 곽규택 · 조배숙
이성권 · 염태영 · 우재준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 · 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 · 표시 ·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

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
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 ----- ----- ----- <u>. 이 경우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